

NEAR News

동북아시대를 선도하는 NEAR | NEAR Leading the Era of Northeast Asia | 2008년 9월~10월 / 제23호



제7차 NEAR 총회
The 7th NEAR General Assembly

특별기고

제7회 총회를 다녀와서...

이달의 동정

NEAR 활동 | 사무국 소식 | 회원자치단체 동정

기획취재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NEAR 회원탐방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Special Contribution

Some Thoughts on the 7th NEAR General Assembly

NEAR This Month

NEAR Activities | Secretariat News | NEAR Member News

Feature Report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NEAR Member Tour

Irkutsk Region, Russia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한민국 경주에서 모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그 후 북한과 몽골이 신규 회원 단체로 참여, 현재 6개국 69개 자치단체로 성장한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방외교협력체 입니다. 연합은 그 동안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연합헌장을 채택하고, 상설 사무국을 설치, 경제통상, 문화교류, 환경, 방재, 일반교류, 변경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NEAR is ...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sisting of 69 member governments from six countries.

It was founded back in September 1996 in Gyeongju, South Korea by 29 governments from four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With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and Mongolia and the accession of new member governments, NEAR has grown as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association devoted to regional diplomacy and cooperation.

NEAR has adopted NEAR Charter based on the ideology of co-prosperity of Northeast Asia, established a permanent secretariat office in Pohang, Korea and carried out extensiv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various fields ranging from economy and trade, cultural exchange, environment, disaster prevention, general exchanges to cross-border cooperation.

「NEAR NEWS」는 회원단체 서로간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NEAR의 공식메신저로 창간되었습니다. NEAR의 활동상황, 회원단체 동정, 관련 국제동향, 각종 기고, 공지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기적으로 발간되어 회원단체 및 관련기관에 무료배포되며 NEAR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NEAR News는 회원단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이며, NEAR와 동북아시아지역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NEAR News에 수록하고 싶은 좋은 원고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NEAR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NEAR News” aims to become an official messenger of NEAR to deliver news and share information among members. It is a periodical newsletter containing contents on NEAR activities, member news, international issues, contributions, notification, etc. NEAR News is distributed to NEAR members and related institutions free of charge, and is also serviced online on the NEAR homepage. NEAR News is open to anyone who is interested in Northeast Asia. If you have good contribution articles or creative ideas that you would like to run on the NEAR News, please contact the NEAR Secretariat.

산 동 선 언

제7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총회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7차 총회에 참가한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대한민국, 몽골국, 러시아연방 등의 5개국 40개 회원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시아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세계화 시대의 도전에 응전하고, 지역간의 교류증진을 통해 공동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창설한 이래 경제, 환경, 문화, 방재, 변경협력,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산둥성 총회에서 “혁신적인 협력으로 함께 번영을”이란 주제로 회원단체간의 신뢰, 호혜, 상생의 “하나되는 동북아 건설”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펼쳤으며, 연합내부 회원간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의 흡인력과 영향력을 제고하는 한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건설하는데 연합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연합은 회원단체들간의 상호 지원과 협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신뢰, 호혜,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는 조화로운 동북아를 건설한다.
 2. 연합은 인적, 물적, 정보의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동북아시아의 공동발전에 노력한다.
 3. 연합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회원단체뿐만 아니라 비회원단체의 참여를 환영하는 열린 동북아 건설에 노력한다.
 4. 연합은 황사의 발생과 피해 저감, 지구온난화 대책 등 지구의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시책을 실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실현에 함께 노력한다.
 5. 본 총회에서는 동북아 공동번영과 연합의 발전을 위하여 상정된 의제들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총회는 2010년에 열리는 제8차 총회를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개최한다.
 - 2) 총회는 2012년 9월까지 다음 회기 연합사무국을 계속해서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둔다.
 - 3) 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이 제안한 「해양·어업분과위원회」의 신설을 승인하고 코디네이터 단체는 산둥성이 맡는다.
 - 4) 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하남성이 제안한 「관광분과위원회」의 신설을 승인하고 코디네이터 단체는 하남성이 맡는다.
 - 5) 연합회비제는 연합사무국에 위탁한다. 연합사무국은 각국 회원자치단체로부터 국가별로 1인의 대표를 추천받아 「회비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한 다음, 차기실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토론한다.
 - 6) 총회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와 러시아연방 마가단주 등 5개의 자치단체 신규가입을 의결한다.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회원단체는 상호 협력을 통해 이상의 선언 및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9월 2일

Shandong Declaration

The 7th General Assembly of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40 member municipalities from five countries, inclu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and the Russian Federation, which participated in the 7th General Assembly of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held in Shandong Provin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1-4 September 2008, shall make concerted efforts to open a new era of a peaceful, prosperous Northeast Asia based on the following common understanding.

In order to meet the challenge of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to promote joint prosperity through the enhancement of exchanges between regions,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has carried out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in a variety of fields such as economy, environment, culture, disaster prevention, cross-border cooper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has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since its foundation in 1996.

Based on these results, the General Assembly in Shandong was devoted to a wide-ranging discussion on “building a united Northeast Asia” characterized by mutual trust, reciprocity and co-existence among member municipalities under the theme of “Toward Prosperity through Innovative Cooperation,” and reaffirms its commitment to the facilitation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among members, to the enhancement of influence of the Association with more attraction and to the enhancement of the crucial role played by the Association in building a peaceful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and proclaims this Shandong Declaration:

1. The Association is committed to build a harmonious Northeast Asia through mutual support, cooperation and proactive participation of member regions, sharing the values of mutual trust, reciprocity and co-existence.
2. The Association is committed to achieve joint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through practical, continuous exchange and cooperation by means of building human, physical and informational networks.
3. The Association is committed to build an open Northeast Asia which welcomes participation not only of member municipalities, but also non-members for the goal of common peace and prosperity.
4. The Association is committed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by implementing environment-friendly policies to proactively deal with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yellow dusts and the reduction of its damage and global warming.
5. The General Assembly seriously discussed agendas aimed at achieving co-prosperity of Northeast Asia and the growth of the Association, and reached agreement on the following decisions:
 - I. Gyeonggi-Do Province,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the host of the 8th General Assembly to be held in 2010.
 - II. NEAR Secretariat will be placed in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Republic of Korea for an extended term of four years by September 2012.
 - III. The General Assembly approves creation of the Sub-Committee on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proposed by Shandong Provin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Shandong Province will be the Coordinator.
 - IV. The General Assembly approves creation of the Sub-Committee on Tourism proposed by Henan Provinc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Henan Province will be the Coordinator.
 - V.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will be entrusted with the membership fee system. One representative of each country will be recommended by member regions and the Secretariat will establish a “Special Committee on Membership Fee System” consisting of those recommended to come up with a concrete plan of the membership fee system, and will present the agenda for discussion in the next Working Committee Meeting.
 - VI. The General Assembly approves the admission of five municipalities, including Incheon-, Daejeon-, Gwangju and Ulsan Metropolitan C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agadan Reg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new members of the Association.

Member municipalities of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are resolved to earnestly implement the declaration and commitments through mutual cooperation.

September 2, 2008

제7회 총회를 다녀 와서...



베렝바랄 에르데نبilegt
우부르한가이 지사
Berenbaral Erdenebilegt
Governor of Uvurkhangai Province

거센 세계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시대에 협력과 공동노력의 가치가 더욱 새삼스레 느껴지는 오늘날입니다. 1996년 국제기구로서 기초를 닦은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제7차 총회가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5개국의 50여 개 자치단체가 참여, 평화와 번영을 통한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혁신적인 협력으로 함께 번영을’이란 주제로 회원 단체간의 신뢰, 호혜, 상생의 ‘하나되는 동북아 건설’ 및 실질적인 교류협력발전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논의를 펼침으로써 연합활동에 대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회원단체들의 발전을 위한 연합의 역할을 증대시켰으며, 더 나아가 강대한 연합으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고 봅니다.

오늘날 세계경제발전의 주도권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급속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의 성실함과 끈기 그리고 책임감과 단결심은 세계 발전방향의 무게중심을 아시아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아시아의 국가들을 하나의 목표로 결합시키는 기능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협력이란 말이 ‘발전’ 또는 ‘새로운 출구’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 시대에는 남이 이루어 놓은 발전을 그냥 따라가느냐 아니면 스스로 발전의 모델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우리 연합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산둥성 관계자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많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고 회의 또한 상호이해의 바탕 위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총회 기간 중 중국 유교의 시조이자 사상가인 공자의 고향에서 새로운 동북아시대의 창조에 관한 제 의견을 나누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2400여 년 전 가난한 관리로 살았던 그의 위대하고 무한한 사상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치, 민간의 안정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몽골속담에 ‘까치 여러 마리가 힘을 합치면 사슴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단결을 통하여 아시아의 국가들 간 교류 협력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모하시든 모든 일에 성공을 기원합니다.

Some Thoughts on the 7th NEAR General Assembly



The fierce wind of globalization today has brought a renewed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nd joint effort. Recently, the 7th General Assembly of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whose foundation dates back to 1996, was successfully held in Shandong Province. More than 50 local governments from five nations joined the gathering to share their viewpoints on how to achieve a new, peaceful and prosperous era of Northeast Asia.

Under the theme of “Toward Prosperity through Innovative Collaboration,” we discussed ways to establish a “united Northeast Asia” characterized by mutual trust, reciprocity and co-existence and practical conditions required to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member local governments. I believe this gathering encouraged more engagement by members in NEAR activities, increased the association's role to facilitate development of member governments and served as a stepping stone for NEAR to grow into a stronger organization.

These days, Asia is increasingly playing a bigger role in global economic growth. The integrity, outstanding sense of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and the unrelenting spirit of Asian people are moving the center of gravity of global economic development, which was once in Europe, to Asia. I hope that NEAR Association will serve as a unifier that glues Asian nations to one common goal. “Cooperation” means “growth” and a “new way out.” Therefore, I believe NEAR holds the key to the question of whether we would just follow suit or set an example of development for ourselves.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officers and staffs of Shandong Province and NEAR Secretariat for successfully holding this General Assembly. Thanks to your effort, we were able to deal with many significant issues during the congres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Personally, in particular, it was my great honor to have an opportunity to share my opinion in the hometown of Confucius, the great thinker and father of Chinese Confucianism, on how to create a new age of Northeast Asia. The profound philosophy of Confucius, who lived a frugal life as a government official 2400 years ago, provides penetrating insight and teachings not only for today, but also for future political development and stable growth of civil society.

As a Mongolian saying goes, “magpies can jointly catch even a deer.” I firmly believe that solidarity among us Asian nations leads to expanded exchange and cooperation.

I wish all the success to NEAR members.

NEAR 활동

● 제7차 NEAR총회가 산둥성에서 성공리 개최

지난 9월 1일~4일 제7차 NEAR총회가 의장단체인 산둥성 제남시에서 개최되었다. '혁신적 협력으로 함께 번영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신규회원단체 및 옵저버단체를 포함한 5개국 50개 단체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각 회원자치단체장들은 2007년 실무위원회에서 발의된 각종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산둥성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한민국 경기도를 차기 의장단체 및 2010년 총회 개최지로 의결
- ② 향후 4년간 더 사무국을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두기로 결정
- ③ 해양·어업분과위원회 신설(코디네이터 단체 : 산둥성)
- ④ 관광분과위원회 신설(코디네이터 단체 : 하남성)
- ⑤ 사무국에서 회비제도특별위원회(각국 대표 참가) 구성, 구체적인 회비제도입안을 마련하여 실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차기 총회에 상정
- ⑥ 한국의 인천,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 러시아 마가단주의 신규회원 가입 의결. 한편, 산둥성에서는 NEAR총회개최에 즈음하여 '중국 산둥 제3회 친환경산업 국제박람회 및 동북아환경보호산업 상담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사무국 소식

● 11월 5일~7일 2008 NEAR 국제경제포럼 열린다

연합사무국에서는 NEAR 창설 12주년을 맞이하여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08 NEAR 국제경제포럼'을 개최한다. 11월 5일~7일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동북아지역의 저명인사 및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 한국의 천년고도 경주에서 '동북아 발전을 위한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을 주제로 동북아지역의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문 의 :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T. 054-223-2318 / F. 054-223-2309
e-mail: aramyoo@neargov.org

NEAR Activities

● The 7th NEAR General Assembly successfully held in Shandong

The 7th NEAR General Assembly was held in Jinan City of Shandong Province, Chair of the 7th assembly on 1~4 September. Under the theme of "Toward Prosperity through Innovative Cooperation," more than 200 representatives of 50 regional governments from five countries including newly admitted members and observers joined the meeting to discuss a variety of agendas proposed at the 2007 Working Committee Meeting. The following are 2008 General Assembly Decisions: 1. Gyeonggi-Do Province (Korea) will be the host of the 2010 General Assembly. 2. NEAR Secretariat will be placed in Gyeongsangbuk-Do Province (Korea) for an extended term of four years. 3. Creation of the Sub-Committee on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Coordinator: Shandong Province, China) 4. Creation of the Sub-Committee on Tourism: (Coordinator: Henan Province, China) 5. NEAR Secretariat will call a special committee meeting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NEAR member countries to come up with a concrete plan for NEAR membership fee system. The committee will present the agenda in the next Working Committee Meeting and General Assembly. 6. Incheon -, Daejeon -, Gwangju - and Ulsan Metropolitan City (Korea) and Magadan Region (Russia) are newly admitted to NEAR membership.

Along with the General Assembly meeting, "The 3rd International Exhibition on Green Industry & Northeast Asia Environmental Protection Industry Fair" was successfully hosted by Shandong Province.

◀ 각국 회원단체 대표단 단장, "동북아, 아름다운 고향"에 서명
Heads of NEAR member representatives left signatures and remarks on the "NEAR, Our Beautiful Home" board.

Secretariat NEWS

● "2008 NEAR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to be held on 5-7 November

Celebrating the 12th anniversary of NEAR, the "2008 NEAR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will be held on 5-7 November in Gyeongju, Korea. World-renowned scholars and experts from Northeast Asia will join this forum, the 2nd of its kind organized by NEAR Secretariat, to discus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under the theme of "The Role of Business Executives in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Contact :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T. +82-54-223-2318 / F. +82-54-223-2309
e-mail: aramyoo@neargov.org

● 사무국,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개최 '2008 바이칼 경제포럼' 참가

9월 8일~11일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사무국 이영화 사무국장 일행은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에서 개최된 '제5회 바이칼 경제포럼'에 참가했다. 바이칼 경제포럼은 러시아에서 지명도 있는 국제행사로서 러시아정부 고위층, 해외진출 러시아 기업인 등이 참가했다. 이번 포럼기간 중에는 총회 및 원탁회의를 통해 세계개발을 위한 시베리아와 극동의 역할,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략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러시아 연방의회 연방위원회 의장인 세르게이 미로노프가 의장직을 수행했던 이번 포럼에는 산천바야르 몽골총리, 왕 짜오구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 부위원장, 야수토시 니시무라 일본 국회의원, 볼라트 누르가리예프 상하이협력기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포럼 기간 동안에는 국제컨퍼런스 <유럽-아시아-아태지역: 에너지 분야에서의 통합과 협동의 길>도 개최되었다.



● NEAR Secretariat Delegation Participated the "2008 Baikal Economic Forum" in Irkutsk

NEAR Secretariat delegation led by Deputy Secretary General Lee Young Hwa attended «The 5th Baikal Economic Forum» held in Irkutsk Region, Russia. High-level Russian government officers and overseas Russian entrepreneurs joined the recogn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to discuss the role of Siberia and the Far East in the global development and to come up with regional development programs and strategies through a plenary session and round tables. Chaired by President Sergei Mironov of the Russian Federation Council, the forum was participated by distinguished political leaders, including Prime Minister S. Vayar of Mongolia, 1st Vice Chairman Wang Zhaoguo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Vice Minister Yasutoshi Nishimura of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General Director Bolat Nurgaliev of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Meanwhile,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Europe Russia Asian-Pacific Region: Ways of Integration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ergy» took place during the same period.

◀ 제5회 바이칼 경제포럼
The 5th Baikal Economic Forum

회원자치단체 동정

흑룡강성 - 중국

● '중국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동북지역 예선대회 개최

흑룡강성 대외우호협회와 아시아나항공 하얼빈 지점이 개최하고 길림성, 요녕성 대외우호협회, 대한민국 주 심양(瀋陽) 총영사관,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협찬하는 '제3회 금호 아시아나배 중국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동북지역 예선전이 9월 25일 흑룡강대학 국제문화교육학원에서 개최되었다.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등 동북 3성의 11개 대학에서 온 20명의 선수가 대회에 참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길림(吉林)대학의 루 상(魯爽)이 1등상을, 길림대학의 루 시아(魯夏)와 요녕(遼寧)대학의 바이 원시아(白雲霞)가 2등 상을 수상하여 전국 결선대회에 진출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중국 한국우호협회와 한국 중국우호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3회 금호 아시아나배 중국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중국 대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중 교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회다.



NEAR Member News

Heilongjiang Province - China

● Chinese College Students Compete in Korean Speaking Contest

The preliminary contest in the Northeastern area for "The 3rd Kumho Asiana Cup Korean Language Competition of Chinese College Students" was held on 25 September a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 and Culture of Heilongjiang University, sponsored by Heilongjiang People's Association for Friendship with Foreign Countries (PAFFC) and Harbin branch of Asiana Airlines and supported by Jilin Province, Liaoning PAFFC, Shenyang Consulate at Korea and Kumho Asiana Group. 20 candidates from 11 universities in Heilongjiang, Jilin and Liaoning Province competed neck-and-neck with each other. Lu Shuang of Jilin Univ. topped the competition, while Lu Xia and Bai Yunxia from Jilin Univ. and Liaoning Univ., respectively, shared the second prize. Co-organized by the Chinese PAFFC, Korea China Friendship Association and China-Korea Friendship Association, "The Kumho Asiana Cup Korean Language Competition of Chinese College Students" is designed to improve Korean competency of Chinese student, foster talen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acilitate mutu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between both peoples.

◀ 내빈과 참가선수 기념촬영
Competitors and guests of the Preliminary Contest

회원자치단체 동정

산동성 - 중국

● 2008 산동 국제 문화산업 박람회 개최

산동성 인민정부가 주최하는 '2008 산동 국제 문화산업 박람회(약칭 문박회)'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남(濟南)에서, 27일부터 30일까지 제녕(濟寧)에서 개최되었다.

'문박회'는 '중국 곡부(曲阜) 국제 공자(孔子)문화제'와 연계하여 공자의 문화적 가치를 드높이는 한편, 한국, 일본 등과 이웃하는 등 동북아의 핵심위치에 자리잡은 산동의 지역적 특색을 발휘하고 문화산업의 다국적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한국의 복장전 대표단과 일본의 서예전 대표단 등 50여 명의 중국과 해외 문화전시 대표단이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야마가타현 - 일본

● 야마가타현-흑룡강성 우호교류 체결 15주년 기념식 열려

야마가타현과 흑룡강성의 우호교류 체결 1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8일 야마가타시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사이토 히로시 야마가타현 지사는 지금까지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층 더 활발한 교류와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흑룡강성 정부 대표단 단장인 초영 여우똥 부성장은 야마가타현 기업의 흑룡강성 투자 등 상호 우호교류가 더욱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10월에는 야마가타현 대표단이 흑룡강성을 방문, 더욱 활발한 교류협력 추진을 내용으로 한 각서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하얼빈 재팬 위크 야마가타현 특산물 홍보전이 열렸다.



NEAR Member News

Shandong Prefecture - China

● The 2008 Shandong Culture Industry Fair

"The 2008 Shandong Culture Industry Fair (SCIF)" organized by the People's Government of Shandong was held on 19-22 September and on 27-30 September in Jinan and Jining, respectively. Staged in tandem with Qufu International Confucius Culture Festival, SCIF is designed to highlight the value of Confucius culture and to provide an international platform for multinational exchanges in the field of cultural industry, while making the most of Shandong's distinctiveness as a region placed in the center of Shandong placed in the center of Northeast Asia neighboring Korea and Japan. More than 50 national and foreign cultural representatives attended the event, including Korean clothing - and Japanese calligraphy experts.

Yamagata - Japan

● Yamagata and Heilongjiang Celebrated the 15th Anniversary of Their Friendly Ties

The 15th anniversary of friendly ties between Yamagata Prefecture and Heilongjiang Province was held on last 28 May in Yamagata City. Yamagata Governor Hiroshi Saito expressed his expectation for more active exchange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existing friendship between the two parties, while Heilongjiang Vice Governor Cheng Youdong hoped that mutual exchanges such as Yamagata businesses' investment in Heilongjiang would be furthered. In October, Yamagata delegation visited the Chinese province to exchange a memorandum on the enhancement of active cooperation, while a special promotion event of Yamagata local products was held on the occasion of "Harbin Japan Week."

◀ 야마가타현 - 흑룡강성 우호교류 체결 15주년 기념식
The 15th anniversary of Yamagata-Heilongjiang friendly ties

경상북도 - 한국

● 경상북도, 2008년~2012년 NEAR사무국 연임

김관용 지사가 이끄는 경상북도 대표단은 경상북도의 NEAR상설사무국 연임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3일 중국 산둥성에서 개최된 2008 NEAR 총회에 참석하였다.

참가단체의 만장일치로 향후 4년간(2008년 9월~2012년 9월) 경상북도의 연합사무국 연임을 의결 한데 대하여 김관용 지사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연합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체계화하기 위해 “상설사무국의 항구적인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Gyeongsangbuk-Do Province - Korea

● Gyeongsangbuk-Do hosts NEAR Secretariat for an extended term by 2012

A Gyeongsangbuk-Do delegation led by Governor Kim, Kwan Yong participated in the 2008 NEAR General Assembly held on 1-3 September in Shandong Province, China to present a proposal to host NEAR Secretariat in the province. Expressing his gratitude upon a unanimous decision by member municipalities to place NEAR Secretariat in Gyeongsangbuk-Do for an extended term of four years (September 2008-September 2012), Governor Kim suggested to “permanently institutionalize the standing Secretariat” in order to “invigorate the function and role of NEAR Association and concretize its shared vision.”

◀ 사무국 연임의결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Governor Kim, Kwan Yong extends his gratitude

경상남도 - 한국

● 경상남도, ‘환경올림픽’ 람사르 총회 개최

아시아에서는 1993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제10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가 10월 28일~11월 4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습지의 보전과 바람직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이번 람사르 총회는 본회의, 지역회의 등 공식행사 이외에도 창녕 우포늪, 낙동강 하구, 창원 주남저수지, 순천만 등 주요 습지와 사찰 등 생태와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8개의 탐방코스에 대한 현장견학도 실시된다. 경남도는 람사르총회 홍보를 위해 2008 국제 환경·에너지 및 생태 박람회(10월 9~12일, CECO) 등 사전 행사도 마련한다.

람사르총회는 당사국간 논의를 통하여 지구 차원의 습지보전 상황을 평가하고 공동의 정책을 개발하는 중요한 국제 환경회의로서 매 3년마다 대륙별 순환 원칙에 의해 개최된다. (www.ramsar2008.go.kr/)

Gyeongsangnam-Do Province - Korea

● Gyeongsangnam-Do hosts the Environmental Olympic Games

The 10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Wetlands (The Ramsar COP10) will take place from Oct. 28 to Nov. 4 under the theme “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 at CECO building in Changwo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Ramsar conference, the second of its kind held in Asia, following Japan’s Kusiro meeting in 1993, will not only discuss various agendas on wetland conservation in Plenary Sessions and Regional Meetings, but also provide eight mid-conference excursions to Korea’s famous Ramsar sites, including Upo Wetland, Nakdong River Estuary, Junam Wetlands Park and Suncheon Bay along with various wetlands. For preliminary promotion, colorful events will precede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Energy & Eco-Tech Expo 2008. The Confe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is the policy-making organ of the Ramsar Convention, which reviews the general trend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amsar Convention and adopts decisions to improve the way in which the Convention works. (More information: www.ramsar2008.go.kr/)

회원자치단체 동정

오르혼아이막 - 몽골

● 오르혼아이막, 세케슈페헤르바르시와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지난 9월 5일~10일 샤르후 오르혼 아이막 지사의 초청으로 헝가리공화국의 페예르 주의 주도인 세케슈페헤르바르시장 티하메르 와르바셔우스키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오르혼 아이막을 공식 방문하였다. 9일 오르혼아이막은 세케슈페헤르바르시와 문화, 교육, 스포츠, 보건, 관광 분야 교류를 위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세케슈페헤르바르시는 버스공장, 라디오·텔레비전 조립공장, 오토바이 공장 등 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산업도시이며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오르혼 아이막과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례공유, 아이막의 산업 분야 실무자들이 세케슈페헤르바르시의 산업단지 시찰 및 조사하는데 지원하기로 했다.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MOU Signing Ceremony

사할린주 - 러시아

● 사할린주, 제12회 2008 사할린 연례 석유·가스 컨퍼런스 개최

10월 3일~4일 제12회 2008 사할린 연례 석유·가스 컨퍼런스가 사할린 주에서 개최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러시아연방 부총리 이고르 세친, 러시아연방 에너지부장관 세르게이 슈마쯔코, 사할린주지사 알렉산드르 호로샤빈, 가스프롬(Gazprom) 운영위원장 알렉세이 밀러, 로스네프치(Rosneft) 사장 세르게이 보그단치코프 등이 참가, 석유탐사 프로젝트 <사할린> 실행과 관련, 사할린주의 석유가스 개발전망, 탄화수소 가공 작업, 극동지역의 석유가스 탐사 및 채굴 전망에 관해 논의하였다.

NEAR Member News

Orkhon Province - Mongolia

● Orkhon Signed Cooperation MOU with Szekesfehervar

Invited by Governor Sharkhuu of Orkhon Province, a Hungarian delegation led by Mayor Tihamer Warvashovsky of Szekesfehervar City, the capital of Fejer Province, paid an official visit to Orkhon on 5-10 September to sign a cooperation MOU with its counterpart in the fields of culture, education, sport, health and tourism. Szekesfehervar, an industrial city where seven industrial complexes are placed including bus and motorcycle factories and radio and television assembly plants agreed to share experiences of creating the industrial zone and to provide support for Orkhon's industrial practitioners to visit and study the place.



초등학교 방문
Szekesfehervar Delegation visited an elementary school in Orkhon

Sakhalin Region - Russia

● The 12th Annual Sakhalin Oil and Gas Conference Convened

The 12th Annual Sakhalin Oil and Gas Conference 2008 was held on 3-4 October at Sakhin Center of Yuzno-Sakhalinsk City, Sakhalin Region. High-ranking decision makers such as Vice Premier Igor Sechin and Energy Minister Sergei Shmatko of Russian Federation, Governor Alexandr Khoroshavin of Sakhalin, Chairman Alexei Miller of the Management Committee of Russian energy company Gazprom and President Sergei Bogdanchikov of Rosneft attended the meeting to discuss various issues concerning the Russian Oil Development Project <Sakhalin>, including the prospect of oil & gas development in Sakhalin, hydrocarbon processing and the outlook on oil & gas exploitation in the Russian Far East.

International Events Schedule

국제행사일정

자치단체	행 사 명	장 소	기 간	연 락 처
호남성	제10회 호남 국제 농업 박람회	장사시	11월 18일~24일	호남 국제 농업 박람회 조직위원회 T. +86-731-2811557 / F. +86-731-2811560
니가타현	니가타 국제비즈니스 멧세 2008	니가타시	11월 6~7일	니가타 국제 비즈니스 멧세실행위 T. +81-25-224-0550 / F.+81-25-224-4347 http://messe.pavc.ne.jp
부산광역시	제6회 부산국제수산물무역 엑스포	부산시 벡스코	11월 13~15일	부산국제수산물무역엑스포추진위 http://www.bisfe.com
경기도	제6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	KINTEX	11월 13~16일	경기관광공사 T.+82-31-259-6983
경상남도	2008 국제조선해양산업전 (Marine Tech 2008)	창원시CECO	11월 11~14일	K.Fairs T.+82-2-555-7153
	2008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창원시 CECO	11월 25~27일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사무국 T. +82-55-211-5531 http://www.2008gwcw.org
	2008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창원시 CECO	12월 7~16일	IJSO2008 사무국 T. +82-55-212-1080~5 / F.+82-55-212-1090 e-mail: ljso2008@ijsor.kr
하바롭스크 변경주	국제학술 컨퍼런스<발전 가능성이 높은 극동지역 : 학문과 혁신>	곰소몰스크나-아무레	11월 14일	아무르 국립 사범대학교 T. +7-4217-59-13-79 / F. +7-4217-59-14-19 e-mail: science17@list.ru
	국제 컨퍼런스 <러시아 극동지역 : 2025년까지 발전의 원동력>	하바롭스크	11월 18~19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경제연구소 T. +7-4212-72-48-88 / F. +7-4212-72-48-07 http://www.ecrin.ru / e-mail: buldakova@ecrin.ru
연해변경주	국제환경포럼<국경없는 자연>	블라디보스톡시	11월 12~13일	환경국 T. +7-4232-49-34-65(20-93-05) http://priroda.primorsky.ru e-mail: ecology@nature.primorsky.ru , priroda@primorsky.ru , tarasenko_yg@primorsky.ru

Member	Event	Venue	Date	Contact
Hunan Province	Hunan 10 th International Agricultural Fair	Changsha	18 ~ 24 November	The Organizing Committee of Hunan International Agricultural Fair T.+86-731-2811557 / F.+86-731-2811560
Niigata Prefecture	Niigata International Business Messe 2008	Niigata City	6 ~ 7 November	Niigata International Business Messe Executive Committee T. +81-25-224-0550 / F.+81-25-224-4347 http://messe.pavc.ne.jp
Busan Metropolitan City	2008 Busan international Seafood & Fisheries Expo	BEXCO	13~15 November	The Executive Committee of 2008 Busan International Seafood & Fisheries Expo http://www.bisfe.com
Gyeonggi-Do Province	Gyeonggi International Travel Mart 2008	KINTEX	13~16 November	Gyeonggi Tourism Corporation T.+82-31-259-6983
Gyeongsang nam-Do Province	Marine-Tech Korea 2008	CECO, Changwon	11~14 November	K.Fairs T.+82-2-555-7153
	2008 Gyeongnam World Conference on Women's Human Rights	CECO, Changwon	25~27 November	2008 Gyeongnam World Conference on Women's Human Rights Executive Committee T. +82-55-211-5531 / http://www.2008gwcw.org
	2008 International Junior Science Olympiad (IJSO)	CECO, Changwon	7~16 December	IJSO2008 Secretariat T. +82-55-212-1080~5 / F.+82-55-212-1090 e-mail: ljso2008@ijsor.kr
Khabarovsk Territory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The Far East of High Potential: Science and Innovation>	Komsomolsk-na-Amure	14 November	Amur National Univ. T. +7-4217-59-13-79 / F. +7-4217-59-14-19 e-mail: science17@list.ru
	International Conference <Russian Far East: The Growth Engine by 2025>	Khabarovsk	18~19 November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the Far Eastern Department of the Russian Science Academy T. +7-4212-72-48-88 / F. +7-4212-72-48-07 http://www.ecrin.ru / e-mail: buldakova@ecrin.ru
Primorsky Region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um <Nature without Border>	Vladivostok	12~13 November	Department of Environment T.+7-4232-49-34-65(20-93-05) http://priroda.primorsky.ru / e-mail: priroda@primorsky.ru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2009년 8월, 지구촌과 함께 인천이 꿈꾸고 만들어가는
21세기 미래 도시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INCHEON 2009 Global Fairs Festival

‘인류의 역사문화가 피워놓은 꽃’이라 불리는 ‘도시’. 특히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탄생한 현대 도시들은 첨단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눈부신 변모를 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양산된 수많은 환경문제들은 화려한 빌딩숲 이면에 회색빛 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어둡게 물들인다. 이를 바꾸기 위해 인천시가 나섰다.

인천은 오는 2009년 8월 7일~10월 25일 ‘내일을 밝히다(Lighten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주최, 세계 각국 도시와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 문화단체, 도시전문가 등과 함께 인류의 공동과제인 환경문제의 해결방안과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미래도시상을 모색한다.

인간과 문화, 그리고 첨단 테크놀로지가 멋지게 어우러지는 21세기 도시공간과 도시문화의 창출을 지향하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도시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 세계인들이 함께 모여 즐기고, 소통하고, 감동하는 그 축제의 장으로 미리 여행을 떠나보자.

(편집자주)

“City” is the flower of human history and culture. The emergence of industrial society, in particular, gave birth to modern cities, which have changed dramatically with the growth of high-technology. However, a number of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risen at the same time, tarnishing the shiny image of downtown cities.

Now, Incheon is committed to change this. With the vision of “Lightening Tomorrow,” the Korean metropolitan city will host “Global Fair & Festival 2009” to provide a platform for cities, global corpor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ultural institutions, urban planners and developers around the globe to find solutions to urban environmental issues and share ideas on a sustainable, happy future city.

Aiming to create a new urban culture and space for the 21st century, “The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will act as a catalyst for improved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among world cities and global corporations, while providing visitors a variety of fun through diverse activities and events. Here is the forward glimpse of the festival:

개 요

- 공식명칭 :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 개최장소 : 인천 전역(주행사장 : 송도국제도시)
- 기 간 : 2009년 8월 7일~10월 25일(80일간)
- 주 최 : 인천광역시
- 주 관 : 인천세계도시 축전조직위원회
-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전 시 회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은 미래도시개발과 관련, 주제별 공동 및 개별 전시관으로 구성되며, 참가기업 및 기관은 도시의 진화, 미래 도시의 방향, 현대 도시 트렌드를 보여주는 콘텐츠를 전시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문화, 첨단기술제품 및 환경친화적인 도시의 일상이 소개되며,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홍보의 장이 마련된다.

인천도시계획관 · ‘투모로 시티’ 전시 · 세계문화의 거리 등 다수.

At a Glance

- Official Title :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 Venue : Songdo Free Economic Zone
- Date : August 7 - October 25, 2009 (80 days)
- Expected Visitors : 7 Million Visitors
- Host : Incheon Metropolitan City
- Organizer : 2009 Incheon Global Fair &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Exhibitions

“The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will consist of individual and joint pavilions each with an authentic sub-theme related to future city development. Each corporation or institution will participate in the form of an exhibition with contents displaying the evolution of cities, the future direction in which cities are headed and contemporary city trends. Exhibitions will also showcase various urban cultures, high-tech products, environment-friendly alternatives to everyday urban life, and promotional opportunities for all participants.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We are making our vision of the 21st century a reality.
We invite you to join us in this pursuit!**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입니다.

우리 인천은 고객서비스 세계 1위의 국제공항, 동북아거점 국제항만,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제물류도시', '국제비즈니스도시', '첨단도시', '교육과 정보의 중심도시', '레저와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은 이러한 우리 인천이 오는 2020년 세계일류명품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열리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은 참가기업들에게는 정보 교류와 홍보의 장, 투자자들에게는 비즈니스의 장,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즐거움과 감동을 안겨주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전세계 도시, 기업, 투자자, 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Mayor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As Mayor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it is my pleasure to extend to you a warm-hearted welcome to Incheon, the nation's new economic growth engine. Incheon is actively working to promote itself as a rapidly growing logistical hub, business center, provider of educational and medical services, IT center and a quality leisure-tourism venue. With your help and support, as well as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airport, Free Economic Zone and international seaport, Incheon is sure to become a major logistic hub city in Northeast Asia

The Global Fair & Festival 2009 will provide promotional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ng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and promote business exchanges between investors and companies. The Global Fair & Festival 2009 will be a festival of events where participants and visitor will be able to discover the direction and vision of future cities. I sincerely request participation and support from all interested parties in making the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a festive and global event. See you in Incheon.

컨퍼런스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 도시 대표, 저명한 학자와 CEO, 도시계획 및 개발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 투자무역쇼, 포럼 및 학술회의 등 다양한 컨퍼런스(총 20개)를 개최하여 건설적 토론 및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한다. 컨퍼런스는 미래 및 기존의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도시 재개발, 도시개발, 환경, 에너지, IT, 교통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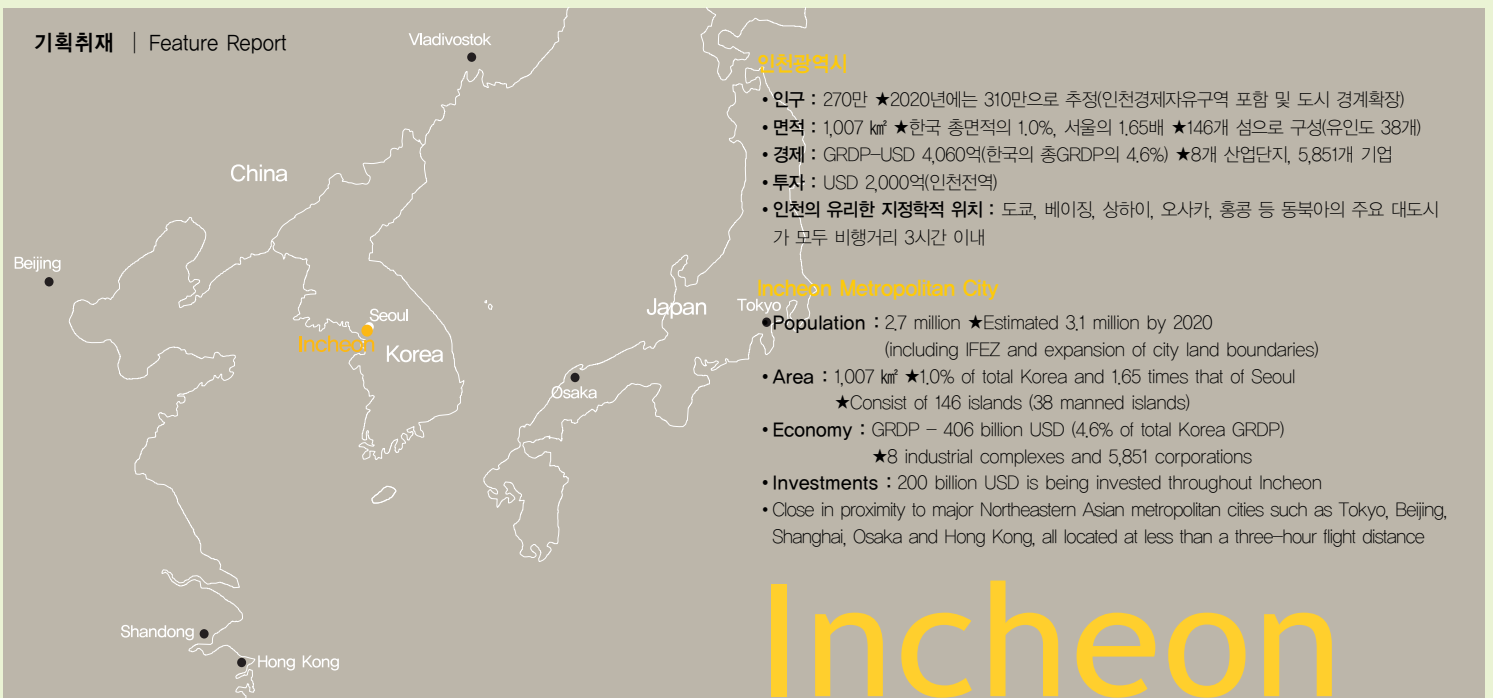
- City Planning & Design Pavilion
- Tomorrow City Exhibition
- World Culture Street and many others

- 아·태도시정상회의(APCS)_ 2009. 9. 15 ~ 9. 17 / 컨벤시아
- 세계환경포럼_ 2009. 8. 17 ~ 8. 19 / 컨벤시아
- 세계지식포럼_ 2009. 10. 13 ~ 10. 15 / 컨벤시아
- 대한민국 과학축전_ 2009. 8. 13 ~ 8.18 / 주행사장
- 뇌과학 컨퍼런스_ 2009. 9. 7 ~ 9. 9 / 컨벤시아
- 국제항공연맹총회(FAI)_ 2009. 10. 6 ~ 10. 11 / 컨벤시아
- 세계통신에너지국제학술대회(INTELEC)_ 2009. 10. 18 ~ 10. 22 / 컨벤시아
- 아시아 전시·컨벤션 CEO포럼(ACF)_ 2009. 8월 / 컨벤시아

Conferences

"The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will invite influential leaders, city representatives, prominent scholars, CEO's, urban planners and developers to speak at various conferences and symposia. Through hosting investment trade shows, forums and academic conferences in conjunction with main exhibitions, the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will create a platform for constructive debate and networking. Conferences will focus on creating solutions to existing and future urban issues, providing participants with real solutions for urban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environment and energy, IT, transportation and sustainable tourism.

- Asia Pacific Cities Summit (APCS 2009) : September 15-17, 2009 at Convensia



인천광역시

- 인구 : 270만 ★2020년에는 310만으로 추정(인천경제자유구역 포함 및 도시 경계확장)
- 면적 : 1,007 km² ★한국 총면적의 1.0%, 서울의 1.65배 ★146개 섬으로 구성(유인도 38개)
- 경제 : GRDP-USD 4,060억(한국의 총GRDP의 4.6%) ★8개 산업단지, 5,851개 기업
- 투자 : USD 2,000억(인천지역)
- 인천의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 도쿄, 베이징, 상하이, 오사카, 홍콩 등 동북아의 주요 대도시가 모두 비행거리 3시간 이내

Incheon Metropolitan City

- Population : 2.7 million ★Estimated 3.1 million by 2020 (including IFEZ and expansion of city land boundaries)
- Area : 1,007 km² ★1.0% of total Korea and 1.65 times that of Seoul ★Consist of 146 islands (38 manned islands)
- Economy : GRDP - 406 billion USD (4.6% of total Korea GRDP) ★8 industrial complexes and 5,851 corporations
- Investments : 200 billion USD is being invested throughout Incheon
- Close in proximity to major Northeastern Asian metropolitan cities such as Tokyo, Beijing, Shanghai, Osaka and Hong Kong, all located at less than a three-hour flight distance

Incheon

행사와 축제

축전이 개최되는 80일간 방문객들은 멀티미디어쇼, 세계 음식축제, 민속 퍼레이드, 콘서트 등 다양하고 독특한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가도시와 기업 그리고 방문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참가하는 도시들과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제고, 도시재창조사업 벤치마킹, 유비쿼터스 프로젝트 참여, 개발과 투자정보 교환, 경제와 문화 교류 등 많은 면에서 구체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참가도시들의 글로벌 브랜드가치 상승
- 전 세계 투자유망지 정보입수 용이
- 대규모 자본의 투자유치 기회
- 다양한 대규모 국제회의 참여
- 전 세계 미래도시들의 개발트렌드 이해
- 도시들의 공동난제에 대한 공동대응 모색
- 도시와 도시, 도시와 기업간 이해와 협력의 장
- 참가도시들 간의 폭넓은 경제와 문화교류 토대 제공

전시와 행사 참가자에 대한 혜택

- 참가 비용 무료
- 참가 기업과 협회에 대한 통역사 지원 1명
- 행사 80일간 전시자와 참가자에 대한 숙박 무료 지원

문의처 :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송도테크노파크 벤처B동 6
Tel : 032-440-7860 Fel : 032-440-7830

Contact

2009 Incheon Global Fair &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Address : Yeonsu-Gu Songdo-Dong 7-50 Songdo Technopark Venture
B Dong 6th Floor Incheon Metropolitan City, Korea
T: +82-32-440-7860 F: +82-32-440-7830

- Global Environment Forum : August 17-19, 2009 at Convensia
- World Knowledge Forum : October 13-15, 2009 at Convensia
- Korea Science Festival 2009 : August 13-18, 2009 at Main Building
- Brain Science Conference : September 7-9, 2009 at Convensia
- The 103rd FAI General Conference : October 6-11, 2009 at Conventia
- Int'l Telecommunications Energy Conference : October 18-22, 2009 at Convensia
- Asia CEO Forum (ACF) : August 2009 at Convensia

Events & Festivals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enjoy and indulge in an endless number of world-class events and various festivals during the 80 days of the Global Fair and Festival 2009. They will consist of concerts, wine and food festivals and parades and many others.

Benefits for Exhibitors, Participants & Visitors

At the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exhibitors and participants will enjoy great opportunities to increase brand value, benchmark urban reconstruction projects and ubiquitous city projects and exchange ideas and information,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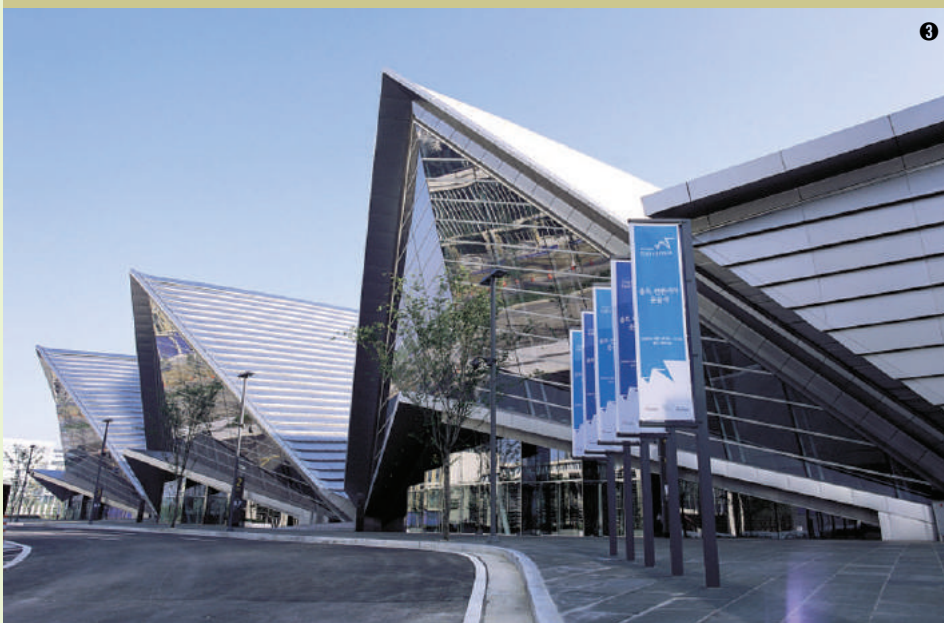
- Opportunities for exhibitors and participants to increase global brand value
- Opportunities to access international investment information
- Opportunities to attract investments
-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 Participation in seeking solutions to current and future urban issues
- Business and networking opportunities
- Experience a wide spectrum of cultures and global views

Incentives for Exhibitors and Participants

- No participation fee will be charged
- 1 Translator free of cost will be provided to each participating corporation / institution
- Free lodging will be provided for exhibitors that participate for the full 80 days



- ① 다양한 첨단 유틸리티스 기술로 미래도시 체험이 가능한 Tomorrow City
Tomorrow City : Ubiquitous system will become the paradigm for future life
- ② Tri Bowl :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랜드마크적 건물로서 하늘, 바다, 땅을 상징하며 건축물이 수면 위에 떠있는 형상으로 조형미 강조
Tri Bowl : The landmark of the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symbolizes the sky, sea and land and looks as if floating on the water.
- ③ 각종 국제회의가 개최될 송도 컨벤시아
Songdo Convensia : Enjoy the business system of the future in convention center which will be a home of global conventions and a new forum of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ty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Russia Irkutsk Region



이고르 에시포브스키 이르쿠츠크지사대행
Igor Esiporsky, Interim Governor of Irkutsk Region

이르쿠츠크 개관

위 치_ 동 시베리아 남단

중심도시_ 이르쿠츠크시

전체면적_ 767,900 km² (러시아 전체 영토의 4.6%)

행정단위_ 14개 도시, 27개 군(郡), 8개 군(郡) 부속 지방도시,
54개 읍(邑), 1,166개 농촌 마을

인 구_ 2,507,600명(2005 기준)

러시아인 (85%) 외 부랴트인, 우크라이나 인 등 100여 민족

기 후_ 대륙성 기후(겨울이 길고 눈이 적게 내리며, 여름은 강우량이 풍부, 따뜻)

평균기온_ -17℃ ~ -33℃(1월), +17℃ ~ +33℃(7월)

Irkutsk Region

Location_ Southern part of East Siberia

Central City_ Irkutsk

Area_ 767,900km² (4.6% of the total area)

Administrative Units_ 14 cities, 27 districts, 8 district cities, 54 towns, 1,166 agricultural villages

Population_ 2,507,600 (2005). More than 100 nationalities, including Russians (85%), Buryats, Ukrainians

Climate_ Continental(long and dry winter, wet and warm summer)

Average Temperature_ -17℃ ~ -33℃(January), +17℃ ~ +33℃(July)



① 러시아 전통 손님맞이 풍습 "빵과 소금" ② 러시아 민속춤 ③ 12월 당원이었던 볼콘스크 백작의 저택 박물관 ④ 탈찌이 박물관
① Traditional Russian greeting "Khleb da sol!" ("Bread and salt!"). The phrase is to be uttered by an arriving guest as an expression of good wish towards the host's household. ② Russian traditional dance
③ Mansion of Count Volkonsk, one of the Decembrists ④ Taltzi Museum

개 황

1682년 이르쿠츠크 관구가 형성된 것이 현재 이르쿠츠크주의 모태가 되었다. 몇 개의 지역으로 분리와 통합을 반복하던 이르쿠츠크주는 1937년 통합을 이루었으며, 몽골계 민족의 자치구인 우스찌-오르진스크 자치구만 분리되었다가 2008년 1월 1일자로 이르쿠츠크주와 우스찌-오르진스크 자치구가 통합되었다.

동시베리아 남단에 위치하는 이르쿠츠크주는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유럽과 극동지역 및 아태지역을 이어주는 교통로의 길목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서쪽으로는 크라스노야르스크변경주, 동쪽으로는 자바이칼변경주, 동남쪽으로는 부랴티아공화국, 남서쪽으로는 킵차공화국, 동북쪽으로는 사하(아쿠치아)공화국과 접경하고 있다.

공 업

이르쿠츠크 주는 러시아에서 가장 공업이 발달한 지역 중 하나이다. 광대한 자원 매장량과 에너지산업 및 높은 교육 수준은 공업단지의 조성 기반이 되고 있다.

<기계제조업>

73개 기업이 금속 가공품 생산, 기계 및 장비 생산, 전기제품 및 전자, 광학제품 생산 그리고 교통수단 및 장비 제조업 등의 기계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연료 에너지 산업>

이르쿠츠크 주는 러시아 연방 내 석탄 매장량 4위이며, '시베리아 석탄 에너지 회사(SUEK)'의 석탄 채굴 및 가공 생산량이 가장 많다. 전기에너지 생산은 이르쿠츠크 주(州) 경제의 주요산업 중 하나인데, 현재 열병합 발전소(31.3%)와 수력 발전소(68.7%)에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르쿠츠크 주(州)는 러시아에서 3번째로 많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열에너지 생산량은 2번째로 많다.

<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은 이르쿠츠크 주(州) 전체 산업 생산 비율 중 12%를 차지한다. '앙가라 석유화학'은 이르쿠츠크 주(州)에서 가장 큰 석유제품회사이며, 공장설비 현대화 등 매년 기술 개선을 통해 상품의 다각화와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Overview

The history of Irkutsk Region begins when Irkutsk district was first founded in 1682. After repeated separation and unification, several districts came together to form Irkutsk Region in 1937 except for Ust-Ordynsk autonomous district, which was incorporated later on January 1, 2008.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eastern Siberia, it has enjoyed geographical advantage as the center of the Asian continent where routes to Europe, the Far East and the Asia-Pacific Region intersect. Irkutsk is bordered by Krasnoyarsk Territory to the west, Zabaikal Territory (former Chita Region) to the east, the Buryat Republic to southeast, the Autonomous Republic of Tyva to the Southwest and the Republic of Sakha (Yakutia) to the northeast.

Industry

Irkutsk has one of the most advanced industries in Russia. Rich resource reserves, advanced energy industry and high quality education have laid the foundation for its industrial complex.

<Machinery Manufacturing>

73 companies are engaged in manufacturing of machinery and equipments, including metal processing products,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s, optical products, and mechanical and transportation instruments.

<Fuel & Energy Industry>

Irkutsk has the 4th largest coal reserve in Russia and the Siberian Coal and Energy Company (SUEK) holds the first place by outputs. With respect to power generation, one of the major industries of the local economy, 31.3% and 68.7% of electric power is generated by combined heat power plants and hydroelectric power stations, respectively. The region is the 3rd largest electricity producer and the 2nd largest heat power producer.

<Oil and Chemical Industry>

Oil and Chemical industry accounts for 12% of Irkutsk's total industrial production. The Angara Petrochemical Company, the largest oil product company in the region, is working to diversify



<가스 산업>

이르쿠츠크 주(州)는 탄화수소 원료 매장량이 많으며, 총 가스 매장량만 7조 5천억 m^3 가량 된다. 액화가스는 5억 톤, 석유는 20억 5천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베르흐 네츨론스크는 최대 석유가스 매장지이며, 코빅타 가스 매장지 또한 추정 가스매장량이 2조 m^3 가량이다. 그 외에 소규모 원료 매장지가 있으며 현재 시굴 작업이 진행된 곳은 전체의 약 10%다.

유용 광물자원

이르쿠츠크 주의 지하자원 개발 잠재력은 러시아 연방 내 7위를 기록하며, 지하자원 개발 여부가 경제 발전에 주요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희귀 금속, 금, 백운모, 마그네사이트, 규암 가루, 청금석, 흑요석 등이 대량 매장되어 있으며, 석탄, 철광석, 칼륨, 석회석, 흑연, 활석, 방화재 원료, 인회석 매장지는 러시아 연방 5대 자원 매장지 중 하나다. 또한 매년 금 15.5톤, 석탄 11~12백만 톤, 철광석 10~11톤 가량이 채굴되고 있다.

대외경제

2007년 대외 무역 거래량은 80억 달러였다.(수출 USD 65억, 수입 USD 15억)

<수출>

주요 수출품은 금속 및 금속 가공품, 목재 가공품, 연료에너지, 화학가공품, 기계, 장비 및 교통 장비 등이며,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몽골, 네덜란드, 한국, 말레이시아 등이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수입>

알루미늄 산업용 원자재 수입이 전체 수입에 42.4%를 차지하며, 이외에 농업, 공업 및 식료품 가공용 기계 장비, 자동차, 석유 화학 제품, 제약 상품 및 생필품 등이 주요 수입품이다. 이르쿠츠크 주(州)의 대외 무역량 절반 이상이 아시아 지역이나, 최근 유럽 및 독립 국가 연합국들과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products and improve their quality through annual technology upgrade and modernization of plant facilities.

<Gas Industry>

Irkutsk has large deposits of hydrocarbon raw material with a total gas reserve of 7.5 trillion m^3 (500 mill. tons of liquefied gas, 2.05 billion tons of oil). Verkhnechonsk is the largest oil / gas reserve, while Kovikta gas field reserve is estimated at 2 trillion m^3 . 10% of the total field has been prospected for mining.

Mineral Resources

Irkutsk's potential for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which plays an integral role in the region's economic growth, ranks 7th within Russia. It is rich in rare metal, gold, mica, magnesite, quartzite powder, lapis lazuli and obsidian. The region has also Russia's 5th largest reserve of coal, iron ore, potassium, lime stone, black lead, talc, apatite as well as fireproof raw materials and annually produces 15.5 tons of gold, 11-12 million tons of coal and 10-11 tons of iron ore.

External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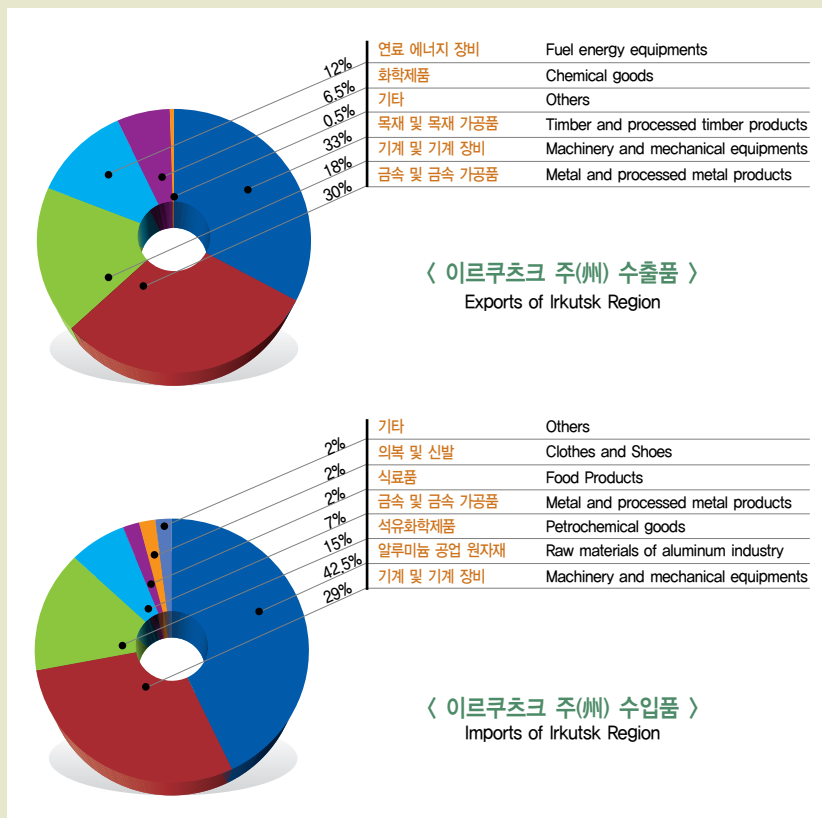
External trade in 2007 amounted to USD 8 billion (Export: USD 6.5 bill. Import: USD 1.5 bill.)

<Export>

Major exports include metal and processed metal goods, processed timber products, fuel energy, processed chemical products, machinery, equipments and transportation instruments. Major importers are China, Japan, the U.S., India, Mongolia, the Netherlands, Korea and Malaysia.

<Import>

Raw materials for aluminum industry account for 42.2% of total imports. Major imports includ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roducts, food processing machinery, automobile, petrochemical goods, pharmaceutical products and daily necessities. Irkutsk's trade volume with Asian regions takes up more than half of its total external trade volume, but it is expanding trade with Europe and the Common 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as well.



교통

이르쿠츠크 주(州)에는 지리적 특성과 여객, 화물 운송을 고려, 철도, 도로, 항공, 해운, 파이프관, 전자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다.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망이 갖춰져 있으며, 바이칼 호수, 앙가라 강과 레나 강을 통한 선박 운항도 이루어지고 있다. 브랴츠크 공항과 이르쿠츠크 공항은 최대 공항이며 국제선도 운행된다.

외국인 투자

2008년 1월 외국인 투자량은 8억 2,600만 달러로, 그 중 간접 투자가 73.6%, 직접 투자 21.1%, 포트폴리오 투자가 5.3%를 기록했다. 2000년~2007년 외국인 투자 유입액은 총 1,400만 달러였다.(간접투자 83.19%, 직접투자 8.59%, 포트폴리오 투자 8.22%). 외국인 투자는 제조업이 46.68%로 가장 많았고, 유용광물채굴산업이 22.7%, 주택 및 부동산자산과 서비스업이 12.71% 순이었으며 총 54개국에서 투자가 유입되었다(키프로스 37.2%, 중국 13.6% 영국이 10.4%).

교육

이르쿠츠크 주(州)는 러시아에서 교육이 가장 발달한 지역 중 하나이다. 러시아 아카데미 연구소 부속 이르쿠츠크 시베리아 연구소는 1949년에 창설되었으며 현재는 우랄 이남 지역에서 2번째로 규모가 크다. UNESCO에 따르면 이르쿠츠크 주(州) 인구 1만 명 당 대학생 수는 546명으로, 이는 러시아연방 전체 평균인 480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관광

러시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한 바이칼 호수는 이르쿠츠크 주(州)의 가장 중요한 관광 자원이다. 호수 면적으로는 세계 8위이며, 담수량이 23,600km³로 세계 1위이다. 최대 수심은 1,637m로(평균 수심: 730m) 세계에서 가장 깊다. 길이는 636km, 폭은 79.5km이다. 바이칼호는 UNESCO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임과 동시에 중앙아시아 문화의 정신적, 물질적 원천이다.

Transportation

Due to the geographical location and demand for freight and passenger transport, Irkutsk provides various transportation including railways, roads, air and maritime traffic, pipelines and electric trains. Airports in Irkutsk and Bratsk, the largest ones in Irkutsk off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flights. Ships operate on Lake Baikal, the Angara River and the Lena River.

Foreign Investment

Foreign investment in January 2008 amounted to USD 826 million (indirect: 73.6%; direct: 21.1%; portfolio: 5.3%). The total foreign investment influx in 2000-2007 reached USD 14 million (indirect: 83.19%; direct: 8.59% portfolio: 8.22%). Foreign investment was made in the fields of manufacturing (46.68%), mineral resource exploitation industry (22.7%) and residence, fixed assets and service industry (12.71%) by 54 countries (Cyprus 37.2%, China 13.6%, UK 10.4%).

Education

Irkutsk has one of the most developed education systems in Russia. The Siberian Branch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n Irkutsk, founded in 1959, is the 2nd largest academic institute in the southern part of Ural Mountains. UNESCO estimates that there are 546 university students out of 10,000 population of the region, which far exceeds the Russian average of 480.

Tourism

Lake Baikal, well known not only nationwide, but worldwide, is the most important tourist resource in Irkutsk, ranking 8th by size (length: 636km; width 79.5km). At 1,637meters, Lake Baikal is the deepest lake in the world (730m on average) and the largest freshwater lake in the world by volume, holding 23,600km³ of fresh water. The UNESCO World Heritage Site is the spiritual, physical origin of the Central Asian culture.

The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601번지(우790-834)

Tel : +82-54-223-2311~20, Fax : +82-54-223-2309

E-mail : aramyoo@neargov.org

www.neargov.org

3F, Pohang TP, 601 Jligok-dong, Nam-gu, Pohang City,
Gyeongbuk, Republic of Korea, 790-834

Tel : +82-54-223-2311~20, Fax : +82-54-223-2309

E-mail : aramyoo@neargov.org

www.neargov.org